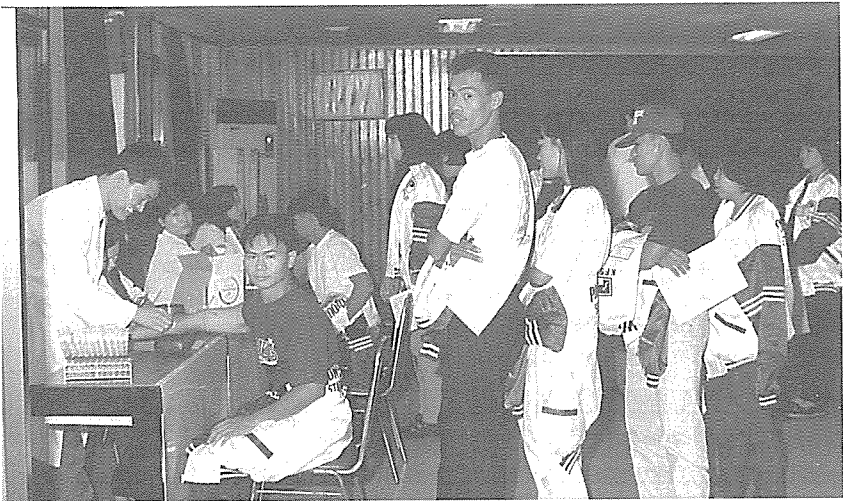




“건전한 근로연수와 건강한 한국에서의 생활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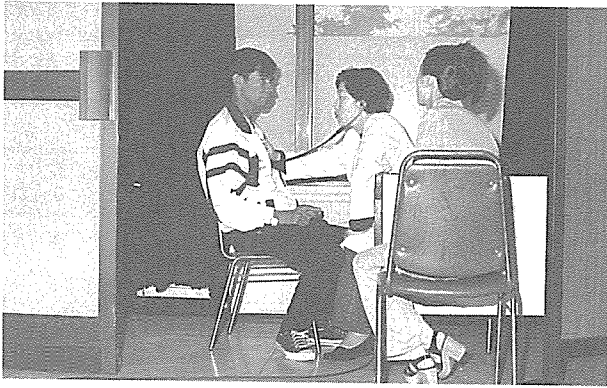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주관의 외국인 근로 연수생 건강 검사



요즘 동남아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 근로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고 있다. 60~70년대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해외 취업을 위해 떠나던 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국력도 국제적으로 많이 신장되었다는데 대한 뿌듯한 느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 외국인 근로 연수생들은 입국 즉시 며칠간의 교육을 받은 후 국내 중소기업체에서 기술 연수를 받도록 배치된다.

한편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이들의 건강과 건전한 연수를 위해 자비를 들여 연수생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난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연수생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검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검진사업의 실시 과정과 이를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대해 소개한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외국인 근로 연수생
건강검진은
'95년 입국예정인원인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하는 근로 연수생 대상 검사

아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새벽 5시 30분, 외국인 근로연수생 건강검진을 떠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건협 서울지부 검진팀의 일손은 바쁘기만 하다. 정확히 6시가 되자 검진팀을 실은 검진버스는 검진장소인 용인 중앙노동경제연수원을 향해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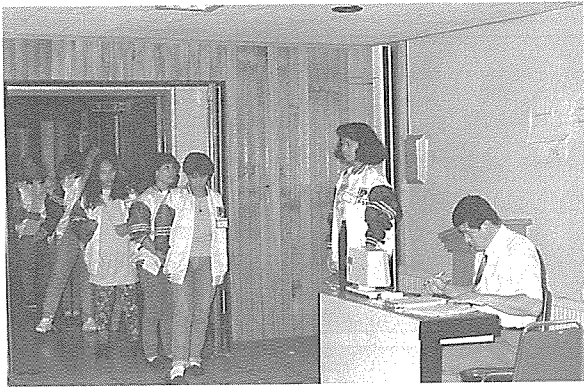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이란·파키스탄·태국·우즈베크·방글라데시·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에서 근로연수와 취업을 위해 우리 나라에 온 연수생들은 입국 즉시 용인 중앙노동경제연수원이나 안양 한국농촌문화연구회 등에서 2~3일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교육일정 중에 포함되어 있다.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주관으로 2만여명 검진예정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주관으로 건협 서울지부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검진을 맡고 있는 이 검진은, 연수생들이 중소기업체에서 현장직업훈련을 하는 동안 건전한 연수와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동시에 내국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연수생에 대한
검사 항목은
소변·혈액·
흉부X-선·
AIDS·매독·
B형 간염 검사
등이다.

이들 연수생에 대한 검사의 항목은 소변·혈액·흉부X-선·AIDS·매독·B형간염 검사 등으로 약 2만여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입국 즉시 실시되는 이 검진을 통해 300여명의 연수생들이 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 통보서는 현재 각 개인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재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 검진 외에 한국문화와 경제 등에 관한 교육도

한편 연수생들은 건강검진 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 법무부, 통상산업부 등으로부터 한국의 문화·생활정보·기초일상 회화·전통예절·외국인 연수제도·한국의 경제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장기자랑, 신체단련 운동 등을 통한 협동과 화합에도 힘쓰고 있다.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189개 회원으로 구성

1962년 5월에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현재 정회원(중소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중앙회의
최경태 외국인 연수협력단
협력부장

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161개와 특별회원(중
소기업 유관기관) 28개로 구성되어 있다.

최경태 중앙회 외국인 연수협력단 협력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중소기업 육성정책 개발 및 건의, 협동조합 조
직화 및 사업 지도, 회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교육 및 정보 제
공,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들어 국제 교류가 다각화됨에 따라 간염, AIDS, 성병 등을
비롯한 해외유입 전염성 질환이 건강관리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입국 근
로연수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입국자들의 건강
관리와 더불어서 내국인의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업장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국가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외국인 근로연수생들은 비록 일시적으로 머물다 떠날 사람들이
지만, 체류기간 동안 그들은 우리 근로자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
이며, 그들의 건강이 곧 우리의 건강이며 전 세계인의 건강임을 잊
지 말아야 할 것이다. ㉔